

##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Audrey Hepburn 스타일 연구

김연숙<sup>†</sup>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 A Study of Audrey Hepburn Style Reflecting on the Fashion in the Late 20th Century

Yeon-Sook Kim<sup>†</sup> · Soo-Jeong Ba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analysis the style of Audrey Hepburn(1929~1993), the most important style icon in the 1950s and '60s from the point of the style of dress in her films - Roman Holiday (1953), Sabrina (1954), Funny Face (1957) and Breakfast at Tiffany's (1966) and fashion activities, furthermore, to know the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fashion.

After 1960s, her style has been recreated by so many designers. In the 1980s, times influenced by post-modernism, there was also the effort to reconstruct the style in the 1950s again. At that time, some Hepburn styles-a reflective of the flamboyant and exaggerating trend in her ages-were appeared by a few designers in the 1980s. Over the 1990s' retro culture, there were a lot of efforts to reemerge the styles in the 1950 and '60s, they led to full-scale reconstruction of Hepburn style - a feeling of the elegance and intelligence harmonizing with the minimal and formal style. By the retro culture adding with the mainstream fashion trend of simpleness and comfort in the year 2000, Hepburn's casual style has been reconstructed to meet the modern need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we could notice that Hepburn style has been recreating from various fashion fields harmonizing with the popular trend of the age.

**key words** : Hepburn style, post-modernism, retro culture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 P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40, Fax : 062-530-1349  
E-mail : ninino@hanmail.net

## 1. 서 론

각 시대마다 유행에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 지배적 이념, 영향력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강혜원 1996). 1950·60년대에는 침체의 위기에 있던 영화산업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스타 시스템 아래에서 유행에 대한 영화 배우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스타는 소비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소비의 모델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할리우드 자체가 패션의 권위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거 특정 스타의 의상 스타일이 당대의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재해석되어 복고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과거 할리우드 스타의 스타일에 대한 고찰은 의의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1929~1993)은 스타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된 1950·60년대에 활발한 연기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배우로 비슷한 시기의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1926~1962)나 브리지드 바르도(Brigitte Bardot, 1934~)같은 관능적인 배우의 스타일과 다르게 청순과 순수의 미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자리잡을 만큼 대중의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녀의 스타일은 영화 의상 디자이너 에디스 헤드(Edith Head, 1897~1981) 뿐 아니라 오트 꾸뛰르 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 1927~),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1898~1960) 등과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어졌다는 점에서 헵번은 패션계와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던 배우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오드리 헵번 스타일은 복식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대의 패션 트렌드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60년대 당시의 오드리 헵번 스타일을 분석하고 현대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난 다양한 오드리 헵번 스타일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것이 20세기 후반 패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오드리 헵번의 주

요 활동 시기였던 1950·6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유행복식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그녀가 출연한 영화 중 그녀의 스타일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1953)」, 「사브리나 (Sabrina, 1954)」, 「퍼니 페이스 (Funny Face, 1957)」, 「티파니에서 아침을 (Breakfast at Tiffany's, 1961)」이라는 4편의 영화를 선정한 다음, 각 영화의 의상을 고찰하였다. 셋째, 영화 이외의 패션 잡지, 사진, 카달로그 등에 나타난 헵번의 스타일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연도별 컬렉션과 대중 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난 다양한 헵번 스타일을 고찰하고 그것들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때 1970년대는 시기적으로 볼 때 헵번 스타일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이므로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자료는 선정된 영화와 영화의상 관련 국내의 문헌, 패션 전문 서적, 패션 잡지(Vogue, Harper's Bazaar), 인터넷 자료 및 오드리 헵번의 생애와 스타일에 관한 자서전적 문헌과 사진, 책자를 통하였고, 관련 영화에 관한 자료는 비디오 테이프(Roman Holiday, Sabrina, Funny Face, Breakfast at Tiffany's)을 이용하였다.

## II. 1950·60년대 사회적 배경과 패션

영화사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1950·60년대 영화는 미국 영화로 대표되며 미국의 사회를 반영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헵번 스타일의 유행 분석에 앞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시대 상황과 영화 산업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 1. 사회·문화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미국에는 베이비 붐에 이어 건축 붐이 일었고 교외거주지로의 인구 이동에 따라 자동차 생산이 급증했으며,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국방비 지출 등으로 경제가 활기를 띄면서 역사상 전례 없는 성장과

변영을 이룩하였다(이주영 등 1996). 생산력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점점 더 여가를 즐기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사치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기술도 발달하여 특히 어린이의 사망률이 감소하여 미국 가정 내에서는 자녀가 중심이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 등장하였다(유송옥 등 1999).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청소년이 되면서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그 영향으로 영화배우의 패션 스타일과 행동 방식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섬유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었다. 특히 나일론의 등장은 스타킹, 슬립 원피스, 패티코트 등의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었다(김경옥 1996).

한 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으로 인해 흑인폭동과 젊은 세대의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 등이 일어남으로써 청년 문화가 전래없이 확산되면서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오현주 1997). 이 시기에 형성된 대표적인 반문화 집단이 히피(Hippies)로, 그들의 패션과 생활방식은 60년대에 널리 성행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운동가들이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페미니즘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성의 복식은 바지와 셔츠 등 기능성과 편안함을 갖춘 의복으로 변하게 되었다.

## 2. 영화 산업

1950년대 TV의 보급과 교외거주지로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 결국 헐리우드는 관객을 잃었고 영화는 최고의 대중 오락에서 여가 활동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의 와이드스크린(widescreen)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1953년 이후 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는 와이드스크린으로 촬영되었으며 이와 함께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는 '대작(blockbuster)'이 유행했다. 1950·60년대에 엄청난 영화 제작비의 부담과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영화제작자들은 스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스타는 흥행의 보증 수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연령과 신분과 관계없이 모여든 다양한 관객

에게 모방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영화 의상은 한 시대의 유행을 창조하여 대중의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에 시네마 패션(cinema fashion), 스크린 패션(screen fashion)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다. 또한 1948년에 아카데미 시상식 부분에서 아카데미 의상 디자인상 부문이 제정되어 영화의상을 전문화시키고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끄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0년 헐리우드에서는 전형적인 멜로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자 영화사들은 여성 스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유명한 의상 전문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해 오프 꾸티르 디자이너들이 본격적으로 헐리우드로 진출함에 따라 이 시기가 영화 의상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의상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디자인 영감을 영화의상에 표현함으로써 스타를 통해 대중에게 브랜드의 가치와 지명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노인정 1998). 헐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꾸티르 디자이너 중 하나가 바로 많은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의 의상을 담당했던 위베르 드 지방시였다.

## 3. 1950·60년대 패션

1950년대는 라인(line)의 시대라고 할 만 큼 해마다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라인을 발표하여 실루엣과 스커트의 길이가 자주 변하였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유행의상의 스커트 길이를 톱기사로 실었고 복식사상 처음으로 룩(look)이나 라인이 일반대중에게 보편적인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김경옥 1996).

1950년대 모드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1947년 뉴 룩(New Look)의 발표로 전후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킨 후 매 시즌 새로운 라인을 발표한 크리스찬 디오르와 직선적인 실루엣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단순한 수트를 선보인 샤넬(Gabriel Chanel, 1883~1971), 1955년 디오르의 A 라인과 비슷한 라인을 선보인 지방시,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1895~1972) 등이었다.

한편 1960년대는 대량생산과 소비의 시대였으며 패션 역시 소수 유명 디자이너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대량 생산된 기성복의 보급을 통해 젊은이들 중심

의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영 패션의 주된 경향은 보다 단순하면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당시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1920년대를 지배했던 박스 스타일의 샤넬 수트나 활동성을 살린 플래퍼 스타일(Flapper style),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 1929~1994)가 샤넬 수트에 작은 모자를 쓴 '재키 케네디 필 박스(Jackie Kennedy pill box)'라는 스타일 등이었다.

이 시기 스타가 출현하는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여 특히 여배우들의 영화 의상은 자연히 대중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것은 잡지의 광고와 사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광고됨으로써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되었다. 마릴린 먼로, 에바 가드너(Eva Gardner, 1922~1990),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1932~)와 같은 여배우들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유행시킨 반면, 또 다른 부류로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1929~1982)와 오드리 헵번은 우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60년대의 세련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오드리 헵번의 의상은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1953)」과 「사브리나 (Sabrina, 1954)」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면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전쟁 중에 나타난 아메리칸 룩(American Look)은 영화배우와 뮤지컬배우에 의해 10대들에게 유행했는데 1950년 중엽의 여배우 라나 터너(Lana Turner, 1920~1995)에 의해 유행된 스웨터 걸 스타일(sweater girl style)과 60년대 패션에 큰 영향을 준 '섹스 키튼(sex-kitten;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로 불리는 브리지드 바르도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디자이너 위주의 패션 경향은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60년대의 패션 경향과는 달랐지만 이 시기 1950·60년대 멜로 영화의 꾸준한 인기로 인해 여배우의 영화 의상과 스타일은 각각의 사회 분위기에 맞게 변화하면서 대중의 패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현대 패션사에도 영향력을 미쳐 오늘날의 패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II. Audrey Hepburn 스타일 분석

오드리 헵번 스타일의 형성은 스크린 위에서 대중에게 널리 보여진 영화의상에서 시작되어 디자이너의

패션 카탈로그나 유명 잡지의 모델로 착용된 의상에 의해 완성되면서 대중의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출현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 의상 부분과 여타의 목적으로 영화제작과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패션사진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당시의 패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 1. 영화에 나타난 스타일

본 연구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1950·60년대에 출현한 영화 가운데 의상을 통해 오드리 헵번 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제시됨과 동시에 흥행 면에서 성공함으로써 대중의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는 영화로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1953)」, 「사브리나 (Sabrina, 1954)」, 「퍼니 페이스 (Funny Face, 1957)」, 「티파니에서 아침을 (Breakfast at Tiffany's, 1961)」을 선정하였다.

##### 1)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1953)

「로마의 휴일」은 로마를 방문한 유럽의 한 왕국 공주인 앤(Audrey Hepburn 분)이 존(Gregory Peck 분)이라는 신문기자와 로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는 줄거리의 영화로, 복장의 변화로 등장인물의 신분과 심리변화를 잘 표현하였다.

앤이 공주로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는 혼장과 예사프로 꾸민 오프 숄더(off shoulder)의 실크 브로케이드 가운(silk brocade gown)을 착용함으로써 그녀의 높은 신분을 드러낸다(임수연 1997). 이후 앤이 로마관광을 위해 대사관을 나올 때는 소박한 면 블라우스와 헴라인(hemline)의 폭이 넓은 플레어 스커트를 넓은 벨트와 함께 착용함으로써 복장이 신분의 상징으로 보는 여배우의 신체적인 이름다움 즉, 슬림한 몸매와 큰 키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다른 장면에서는 같은 의상의 소매를 말아 올리고 앞단추를 풀었으며, 스트라이프 무늬의 실크 스카프를 목에 매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캐주얼 의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때 머리를 짧게 잘라 웨이브를 넣은 헤어스타일(pixie haircut)로 바꿈으로써 등장인물의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참조>.

「로마의 휴일」의 의상제작을 맡은 에디스 헤드는 메이저 영화사에 소속되어 활동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의상 디자이너로써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덟 번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헵번과의 작

업에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이 아닌 평범하고 캐주얼한 의상의 사용으로도 충분히 배우의 매력을 살리면서 캐릭터의 세심한 심경 변화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는 실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1> 「Roman Holiday」  
silk brocade gown  
(www.geocities.com/  
Hollywood/Studio/4290)



<그림 2> 「Roman Holiday」  
pixie haircut과 스카프를 맨 모습  
(Audrey-A Life in Pictures, p.24.)

## 2) 사브리나 (Sabrina, 1954)

「사브리나」는 재벌인 라리비가의 운전사의 딸인 사브리나(Audrey Hepburn 분)가 라리비가의 첫째 아들인 라이너스(Humphrey Bogart 분)와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하층계급에서 상류계급으로 신분 상승하는 과정이 여배우의 복장에 잘 표현된 영화이다. 여성편력가인 라리비가의 둘째 아들 데이빗(William Holden 분)을 짝사랑하던 순진한 처녀 사브리나는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다. 파리유학 전인 영화 초반에는 타이트한 라운드 티 셔츠 위에 면 소재의 체크무늬 점퍼 스커트(jumper skirt)를 착용하고 포니 테일형 헤어스타일을 함으로써 소박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파리에서 돌아온 사브리나는 어깨에 작은 리본 매듭(bow)이 있는 X 자형 실루엣의 검은색 카테일 드레

스(cocktail dress)를 착용하여 파리의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 드레스의 가장 특징적인 디테일은 그녀의 빈약한 쇠골을 가려주는 보트 네크라인이다<그림 4 참조>. 이와 동시에 면 체크 소재의 소박한 셔츠와 숏 팬츠(short pants)를 착용하여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때 셔츠의 여밈을 허리에 감아 바지에 넣어 착용함으로써 그녀의 매력인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하였다<그림 5 참조>. 또한 앞은 보트 네크라인이고 등 부분은 작게 V 자 형으로 파여 있는 타이트한 풀오버(pullover)와 9부 길이의 슬림한 팬츠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사브리나 팬츠(Sabrina pants)'로 불리며 당시 스포츠웨어 디자인에서 많이 응용되었다(Steven Stipelman 1996). 여기에 사브리나가 신은 끝이 약간 뽕족하고 뒤꿈치가 낮은 플랫 슈즈(flat shoes)는 벨벳소재에

정교한 자수를 장식하여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어 팬츠와 함께 완벽한 헵번 스타일을 이루고 있다<그림 6 참조>.

영화의상 디자인은 캐주얼한 의상을 담당한 에디스 헤드와 세련된 파리 패션의 의상을 맡은 지방시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영화를 위해 착용된 지방시의 의상들은 지방시의 1953년 S/S 컬렉션 의상 중 오드리 헵번의 슬림한 신체에 매력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변형된 것들이다. 이 의상들로 「사브리나」는

제 27회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지방시는 영화계와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후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여러 영화에서 의상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영화에서 플랫 슈즈를 선보여 오드리 헵번 스타일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한 디자이너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편안함을 기초로 한 세련된 디자인의 구두로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림 3> 「Sabrina」 jumper skirt  
 (www.geocities.com/Hollywood/Studio/4290)



<그림 4> 「Sabrina」 cocktail dress  
 (Audrey Style, p.31.)



<그림 5> 「Sabrina」 체크 프린트 셔츠와 숏팬츠  
 (Audrey Style, p.35)



<그림 6> 「Sabrina」 니트 폴오버와 슬림한 팬츠  
 (Audrey Style, p.177.)

### 3) 퍼니 페이스 (Funny Face, 1957)

「퍼니 페이스」는 조 스톡튼(Audrey Hepburn 분)이라는 평범한 서점가게 점원이 우연히 유명 패션 잡지의 모델로 발탁되어 일류모델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사진작가인 딕 아베리(Fred Astaire 분)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애정영화이다.

첫 장면에서 조의 차림은 「사브리나」에서 선보인 것과 같은 검은색 폴오버와 타이트한 9부 바지에 굵이 낮은 검은색 펌프스를 신은 수수한 모습이다<그림 7 참조>.

그러나 파리에서 모델이 된 조의 의상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바뀌어, 핑크색의 스트레이트 투피스와 매론색의 7부 길이 수트와 원피스를 앙상블<그림 8 참조>, 보트 넥의 검정색 드레스와 모자,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의 X자형 원피스 등이 착용된다. 강가의 촬영에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짧은 박스형 흰색 블라우스와 일자형의 팬츠가 입혀졌고 허리에는 핑크색 새쉬 벨트를 묶어 캐주얼 하면서 보이쉬한

느낌과 함께 헵번의 슬립한 몸매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9 참조>.

파리에서 있었던 첫 번째 패션쇼 장면에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우아함의 대명사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지방시와 헵번의 본격적인 결연이 나타난 「퍼니 페이스」는 패션에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로, 대부분이 파리의 오프 꾸뛰르를 배경으로 하였고 일류 패션 모델을 연기하기 위한 여배우로 호리호리하고 청순한 스타일의 헵번이 캐스팅되었다(Valerie Steele 2000). 패션잡지 촬영 장면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의상들로 지방시는 자신의 단순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헵번을 통해 구체화시킴으로써 대중에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후로 「하오의 정사(Love in the Afternoon, 1957)」를 비롯한 많은 헵번의 영화에서 의상을 맡아 이들은 서로의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디자이너와 영화배우의 최고의 만남으로 꼽히고 있다(Pamela Clarke Keogh 1999).



<그림 7> 「Funny Face」  
검은색 폴오버와 9부 바지  
(Audrey Style, p.177.)



<그림 8> 「Funny Face」  
수트와 원피스 앙상블  
(Audrey Style, p.91.)



<그림 9> 「Funny Face」  
박스형 블라우스와 팬츠  
(Audrey Style, p.176.)

4) 티파니에서 아침을  
 (Breakfast at Tiffany's, 1961)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홀리 골라이틀리(Audrey Hepburn 분)라는 상류사회를 동경하는 여자가 이웃의 소설가 폴(George Peppard 분)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에 따라 의상에 변화를 준 작품이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석 가게 티파니(Tiffany & Co.) 앞에 선 홀리는 험 부분에 개더로 볼륨을 주고 험라인으로 이리면서 좁아지는 검은색 롱 드레스를 착용하고 긴 장갑과 흰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손에 든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드레스의 특징은 단순한 앞네크라인과 비교하여 특이하게 절개된 뒤 네크라인으로 이라인을 따라 장식된 진주 목걸이와 화려한 핀으로 고정시킨 시농 헤어스타일(chignon hairstyle),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는 홀리의 대표적인 패션이 되었다<그림 10 참조>.

외출할 때 홀리가 보여준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앞은 라운드 네크라인, 뒷면은 조금

더 깊게 파여진 형태로 뒤에서 고정된 끈은 앞에서 리본으로 맬 수 있게 되어 있다(유홍식 1997). 험 라인에는 술 장식이 되어있어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여기에 커다란 크림색 오간디스 카프로 장식된 모자가 더해졌는데 당시 중 모양의 모자(Cloche hat)와 장갑은 모든 의상의 필수품이었다(Gerda Buxbaum 1999)<그림 11 참조>. 이후 홀리는 심경변화에 따라 의상의 이미지를 달리하여 보여준다<그림 12 참조>.

이 영화를 통해 미국의 보석 브랜드 '티파니'는 유럽의 유명 보석 브랜드를 누르는 인지도를 쌓을 수 있을 만큼의 홍보효과를 보았다(<http://www.gmk.co.kr>). 영화의 의상을 맡은 지방시는 사치스러운 의상과 소박한 의상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사치스럽고 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한 도시의 여인으로 험번을 표현했다. 영화에서 험번이 착용한 검은색 위주의 미니멀한 의상은 이 영화가 패션의 모던함을 대표하는 영화로 남게 하였고 현재까지도 패션사에서 주목 받는 영화로 꼽히고 있다.



<그림 10>  
 「Breakfast at Tiffany's」  
 검은색 롱 원피스  
 (Audrey-A Life in Pictures, p.58.)



<그림 11>  
 「Breakfast at Tiffany's」  
 little black dress  
 (Audrey-A Life in Pictures, p.57.)



<그림 12>  
 「Breakfast at Tiffany's」  
 터틀넥 상의와 슬립한 바지  
 (www.geocities.com/Hollywood/Studio/4290)



## 2. 패션잡지에 나타난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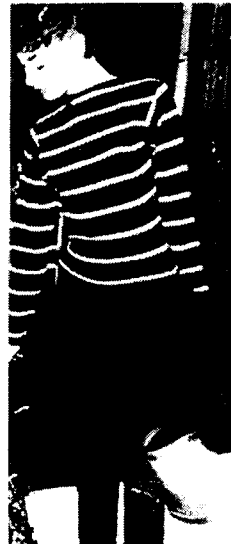
오드리 헵번의 큰 키와 슬림한 체격, 영화를 통해 형성된 청순하고 발랄한 이미지는 패션 잡지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디자이너 지방시와의 꾸준하고 친밀한 관계는 영화의상에 국한된 범위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의 의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잡지 사진에 의한 분석은 1950·60년대 출판된 'Vogue', 'Harper's Bazaar' 등의 패션잡지에 실린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한 사진과 'The Kobal Collection', 'Magnum Photos' 등의 유명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패션 사진 등을 기초로 하였다.

헵번의 슬림한 신체적 특징을 살린 <그림 13>는 단추나 다른 여밈을 사용하지 않고 상의를 허리에 감싸면서 입는 랩라운드 스타일(wrap-around style)

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브리나」의 영화의상에서도 보여졌으며<그림 5 참조> 이후에 헵번이 즐겨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그림 14>은 헵번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짧은 헤어스타일과 함께 가로 줄무늬 보더 티셔츠(border T-shirt)를 슬림한 팬츠와 착용하여 매니쉬(mannish)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풍성한 밉크 폴오버와 타이트한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그림 15>는 악세서리로 스카프와 큰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헵번은 평소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런 스타일을 즐겨했다고 한다(가재창 1993). 이것은 착용방법이 변형되어 영화의상으로 이어져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6>는 지방시의 의상으로 등 부분이 V자로 깊게 파여 있으면서 앞부분은 넓은 보트 넥으로 되어있어 「사브리나」에서 보여 주었던 카테일 드레스와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wraparound style  
(Audrey Style, p.12.)



<그림 14>  
border T-shirt  
(패션디자인발상  
트레닝 5, p.68.)



<그림 15>  
 스카프와 선글래스  
 (Vogue, 1963.1, p.82.)



<그림 16>  
 레이스 소재 롱 원피스 by Givenchy  
 (Vogue, 1963.4, p.71.)

이상에서 살펴본 헵번의 스타일을 당시의 패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브리나」와 「페니 페이스」에서 보여진 니트 풀오버와 9부 길이의 타이트한 바지, 플랫폼 슈즈, 로마의 휴일에서 보여준 헵번의 청순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짧은 헤어스타일 (Georgina O'Hara Callan 1998), 허리에 셔츠를 감싸 입는 랩라운드 스타일의 착장 방법, 그리고 많은 영화와 패션잡지에서 보여지는 스카프, 큰 선글래스, 새쉬 벨트 등의 악세서리로 형성된 헵번의 캐주얼 스타일은 이전에 스타에게서 볼 수 없었던 리얼리즘 (realism)을 강조한 의상으로 실존주의 패션을 보이면서 1950·60년대 새로운 룩을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브리나」와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보여준 보트 넥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롱 원피스, 여기에 어울리는 시논 헤어스타일과 단순함을 보완하는 중 모양의 모자와 담뱃대 등의 악세서리로 형성된 헵번의 포멀한 스타일에서는 모든 장식이 절제된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지방시 의상이 대부분으로 미니멀리즘으로 대표되는 패션의 모던함을 불러 일으킨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헵번 스타일의 의상은 당시 유행 실루엣과 액세서리 아이템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슬림

하고 큰 키가 장점으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된 의상들을 적절히 착용함으로써 관능적인 몸매의 다른 스타들과 구별되는 그녀만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헵번은 유럽 출신이라는 이국적인 배경 위에 청순하면서도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헐리우드 스타들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에 맞추어진 여성미에 대한 범주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헵번의 스타일은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패션 사진에서도 나타남으로써 그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완성되면서 빠르게 유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IV. Audrey Hepburn 스타일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60년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녀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자리잡은 헵번의 스타일은 당시의 패션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1999년 미국의 영향력있는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러 (National Enquirer)에서 20세기 패션 트렌드의 한 축을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 여덟명 가운데 한 명으로 그녀를 선정 할 정도로 20세기 패션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Farbe 1999).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잡지나 컬렉션에 나타난 헵번의 스타일을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20세기 후반 패션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1970년대는 1950·60년대와의 시기적인 차이가 나지 않아 1950·60년대 패션에 대한 복고 경향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과거 패션에 대한 재해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1980년대

1980년대는 라인이나 록이 뚜렷하지 않은 다양성의 시대로 이 시기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장르가 붕괴되고 서로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조형성은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서양의 혼합,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절충주의, 성의 모호성을 표현하는 앤드러지너스 록(androgynous look), 과거를 반영하는 복고풍 등으로 나타났다(정홍숙 1998). 중반 이후부터는 편안하고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복고풍의 대두로 50년대의 스타일이 유행됨으로써 부드러운 여성스러움 강조한 클래식 스타일(classic

style)이 보여졌다. 이것은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더욱 강해졌고 50년대 패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헵번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스타일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헵번 스타일은 대개가 50년대의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 많이 보여졌는데 엠마누엘 응가로(Emanuel Ungaro)는 「퍼니 페이스」에서 헵번이 착용했던 스타일로 80년대 유행한 빅 록 재킷과 함께 새쉬 벨트로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을 발표하였다<그림 17 참고>. 아이작 미즈라히(Isaac Mizrah)는 줄무늬 셔츠의 소매를 말아 올리고 약간 길이가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로마의 휴일」에서와 같은 헵번의 캐주얼 스타일을 응용하였다<그림 18 참고>. Junko Shimada)는 셔츠의 끝을 헵번식으로 묶은 상의와 숏팬츠를 조화시켜 편안한 비치 웨어 분위기를 무대에 올려 헵번 스타일의 80년대식 해석을 보여주었다<그림 19 참고>. 80년대 컬렉션에서는 헵번의 대표적인 액세서리로 스카프와 선글라스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80년대의 화려한 스타일과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스카프가 착용되어 패션 트렌드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Mode et Mode No.238 p.108  
86-S/S, Ungaro



<그림 18>  
Mode et Mode No.261 p.112  
89-S/S, Isaac Mizrahi



<그림 19>  
Mode et Mode No.263 p.48  
89-S/S, Junko Shimada

이상에서 살펴본 1980년대의 헵번 스타일은 주로 캐주얼 스타일의 재해석이 시도된 시기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헵번 스타일의 대표적인 디자인과 아이템만이 응용되어 변형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색상이나 소재는 80년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패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였다. 따라서 헵번의 단순함과 청순한 분위기는 전체적인 디자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 2.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세계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패션경향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크게 자연주의 경향과 레트로 경향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90년대 패션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레트로 풍의 복고적인 경향이 크게 강조되는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특히 1950·60년대를 재현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이 때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

물의 스타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 시대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헵번 스타일과 재키 룩, 마릴린 먼로 스타일의 유행으로 나타났다. 헵번 스타일은 1990년대의 모던함과 믹스되어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포멀한 스타일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창조되었다.

막스 마라(Max Mara)는 쇠골을 가리는 보트 네크라인과 타이트한 허리선, 풍성한 스커트로 영화 「사브리나」에서 착용된 각테일 드레스를 재현했고<그림 20 참조>, 같은 영화에서 헵번이 착용한 검은색 풀오버는 질 샌더(Jil Sander)가 좀 더 넉넉한 품으로 디자인하여 선보였다<그림 21 참조>. 스트라이프 무늬 점퍼 스커트는 목에 귀여운 스카프를 맨 형태로 루이 페로(Louis Feraud)에 의해 변형된 디자인이 선보여<그림 22 참조> 1950·60년대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그림 20>  
 Gap press Vol.238 p.179  
 95/96-F/W, Max Mara



<그림 21>  
 Mode et Mode No.299 p.27  
 97/98-F/W, Jil S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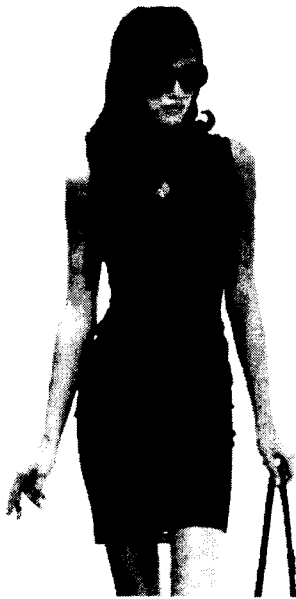
<그림 22>  
 Mode et Mode No.294 p.102  
 96-S/S, Louis Feraud

헵번의 중요한 액세서리인 스카프와 검은 선글라스는 '95/96 컬렉션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젤마 강(Gemma Kahng)등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사용되어 헵번 스타일을 강조하는데 일조했다<그림 23 참조>. 또한 1963년 보그지에 소개되었던 스카프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헵번의 모습<그림 15 참조>을 그대로 재현한 자끄 파스(Jacques Fath)의 디자인이 보였다<그림 24 참조>.

패션계에서의 영향력은 인접 영역에까지 파급되어 화장품 회사 엘리자베스 아덴(Elizabeth Arden)에서는 패션의 레트로 경향에 맞추어 1996년 새로운 향수 홍보를 위한 광고의 컨셉으로 헵번의 이미지를 선택

하였다. 이 광고의 한 장면으로 리틀 블랙 헛과 리틀 블랙 드레스를 착용하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손에 든 헵번의 스타일이 재현되었다<그림 25 참조>.

1990년대의 트렌드는 50년대 스타일의 재해석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지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함으로써 헵번 스타일 역시 캐주얼 스타일보다는 심플하고 모던한 포멀 스타일이 더 많이 선보였다. 이렇게 나타난 헵번의 포멀 스타일은 대개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였고 최소한의 디자인 요소만을 사용한 절제된 스타일을 보여 화려한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여 재현되었던 1980년대의 헵번 스타일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3>  
Gap press Vol.3 p.151 95/96-F/W,  
Dolce & Gabbana



<그림 24>  
Gap press Vol.3 p.131  
95/96-F/W, Jacques Fath



<그림 25>  
Vogue Korea, 1996.12 p.158  
Elizabeth Arden

### 3. 2000년대

2000년대 들어서도 1990년대의 복고풍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나 단순함과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과 단순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의상들이 선보여 결과적으로 화려한 80년대 풍과, 모던하고 포멀한 복

고 스타일의 90년대 풍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복고적인 무드를 살리는 아이템으로는 다양한 폭의 줄무늬, 풍성한 플리츠 스커트와 개더 스커트, 드레이프를 살린 랩 라운드 스타일, 여러 가지 모양의 넓은 벨트, 숏 팬츠와 허리를 드러내는 미드 프리(mid free)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에 재현된 헵번 스타일 역시 2000년대 패션경향에 따라 편안함과 단순함을 기본으로 하는 캐주얼 스타일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났다. 프라다(Miuccia Prada)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플레어 스커트와 개더 스커트를 기본 블라우스와 단순한 폴오버에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헵번의 캐주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그림 26 참조>. 또한 막스 마라는 복고적인 스타일로 헵번이 자주 이용했던 램 라운드 스타일과 넓은 새쉬 벨트, 앞쪽에 자연스럽

게 리본을 늘어뜨리는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27 참조>. 또한 헵번이 자신의 슬림한 몸매에 어울리게 즐겨 입었던 보더 티 셔츠가 선보여졌는데 이 때 다양한 형태와 넓은 스트라이프 무늬가 당시 많은 브랜드와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발표되었다. 영화 「사브리나」의 핫팬츠는 매니쉬한 분위기가 가미되어 세루티(Cerruti)에 의해 선보여졌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랭방(Lanvin), 프라다(Prada), 미우 미우(Miu Miu)에서도 보였다<그림 28 참조>.



<그림 26>  
 Mode et Mode  
 No.313 p.111  
 01-S/S, Prada



<그림 27>  
 Mode et Mode  
 No.313 p.134  
 01-S/S, Max Mara



<그림 28>  
 Fashion News  
 Vol.66 p.77  
 00-S/S, Cerruti

의복에서 뿐 만 아니라 액세서리에서도 헵번 스타일은 강세를 보였는데 다양한 크기의 스카프를 목에 매어 발랄한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머리에 터번처럼 두르는 헵번의 스카프는 돌체 앤 가바나의 컬렉션에서 복고풍 액세서리 역할을 하였다<그림 29 참조>. 2000년대 컬렉션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벨트의 다양한 이용이 돋보였는데, 주로 미니멀한 셔츠와 플레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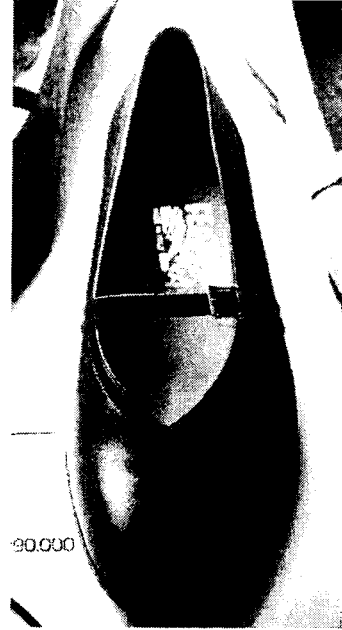
커트에 넓은 벨트를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1950년대 헵번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재해석하였다<그림 30 참조>. 이외에도 2000년 S/S 컬렉션에서 페라가모가 헵번의 '사브리나 슈즈'를 재해석한 메리 제인 스타일의 플랫 슈즈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50년대 복고의 유행을 자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림 29>  
Mode et Mode  
No.313 p.115  
01-S/S, D & G



<그림 30>  
Mode et Mode  
No.313 p.214  
01-S/S, Miu-Miu



<그림 31>  
Mode et Mode  
No.310 p.122 00/01-S/S,  
Salvatore Ferragamo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인물로 특징지어지는 1950·60년대 스타일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복고풍에 대한 관심으로 헵번 스타일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은 미비한 것이었고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50·60년대 패션의 레트로 경향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헵번의 스타일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본격적으로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에는 화려함이 반영된 헵번 스타일이 보여졌고, 1990년대에는 주로 헵번의 미니멀한 포멀 스타일이 보여졌으며, 2000년에 들어서는 단순하고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헵번의 스타일은 한 시기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각 사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반세기 동안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패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향이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것은 1990년대 들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레트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은 레트로 경향의 중심이 되는 1950·60년대의 특징적인 스타일인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을 영화의상과 패션계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분석하고 활동 당시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난 다양한 스타일을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헵번 스타일을 1950·60년대 패션에 끼친 영향과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숏 컷 헤어스타일과 함께 헵번이 보여준 면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트는 「사브리나」와 「퍼니 페이스」의 니트 풀오버와

타이트한 팬츠, 플랫 슈즈, 셔츠와 숏 팬츠 등으로 이어져 청순하고 소박한 캐주얼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스타에게서 볼 수 없었던 리얼리즘을 강조한 스타일로 실존주의 패션을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이너 지방시에 의해 형성된 절제된 단순함과 세련미는 영화 「사브리나」에서 착용된 보트넥의 단순한 카테일 드레스,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헵번이 착용한 검은색 슬리브리스 드레스와 귀여운 느낌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모던함을 대표하는 의상이 되었고 「퍼니 페이스」에서는 지방시 특유의 단순함과 고급스러움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의상들이 착용되었다. 또한 머리에 두르거나 목에 매는 스카프, 선글라스, 진주 목걸이, 리틀 블랙 햇 등 헵번의 악세서리는 단순함을 커버하는 아이템으로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러한 헵번의 포멀한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면서 패션의 모던함을 촉진시켰다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헵번 스타일의 복고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헵번 스타일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 시작되었다. 이때 헵번 스타일은 당시의 화려하고 과장된 실루엣의 패션 트렌드와 함께 병행되어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캐주얼한 스타일의 변형이었다.

둘째, 1990년대 들어서서 1950·60년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하나의 트렌드인 복고풍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 오드리 헵번 스타일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특히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요구하는 90년대 패션경향의 영향으로 헵번의 미니멀한 포멀 스타일이 크게 강조된 디자인이 많이 선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스카프와 선글라스 등의 악세서리가 적절히 이용되어 조화를 이루었다.

셋째, 2000년대에도 여전히 복고풍의 강세로 헵번 스타일이 재현되어 나타났는데 단순함과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는 2000년대 패션의 큰 흐름에 따라 평범한 아이템을 통해 세련미를 나타내는 헵번의 캐주얼한 스타일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헵번의 스타일은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정착된 후부터

80~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다. 각 시대의 헵번 스타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인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보여지면서 시대별 패션 트렌드에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유동적인 변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패션 리더로써 스타와 연예인들이 창조해낸 스타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이 패션에 대한 그들의 바람직한 영향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일 : 2002년 6월 25일

## 참 고 문 헌

- 가재창(1993).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5권**. 도서출판 정은 : 67, 68.
- 강혜원(1996).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127.
- 김경옥(1996). **서양복식사**. 양서각 : 380, 347.
- 노인정(1998). 1950년대 Edith Head의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1997). 1960년대 Fashion의 조형미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이은영·황선진(1999). **복식문화**. 교문사 : 228.
- 유홍식(1977). 1990년대 패션에 재현된 '헵번룩'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변설전문대학 논문집 제16집 : 218.
- 이주영·황혜성·김연진·조지형·김형인(1996) **미국 현대사**. 비봉출판사 : 173.
- 임수연(1997). 에디스 헤드(Edith Head)의 영화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아카데미 영화제 의상디자인 수상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1998).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404.
- 허정아(1993).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arbe(1999-11). 20세기 스타일을 만든 8인. 220.
- Fashion Today(1993-4). 영원한 페어레이디-오드



- 리 헵번. 34.
- Georgina O'Hara Callan(1998). *Thames and Hudson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and Hudson. 108.
-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Prestel. 78.
- <http://www.gmk.co.kr/MOVIE/new/custom1/tiffany.htm>
- Jane Mulvagh(1998). *Vogue History of 20th c. Fashion*. NY:Viking. 253.
- Krenz, Carol(1997). *Audrey-A Life in Pictures*. Metro Books. 24. 57. 58.
- Pamela Clarke Keogh(1999). *Audrey Style : The Subtle Art of Elegance*. Aurum. 12. 31. 35. 89. 91. 176. 177.
- Steven Stipelman(1996). *Illustrating Fashion-Concept to Creation*. Fairchild Pubns. 228.
- Valerie Steele(2000). *Fifty years of Fashion-New Look to Now*, Yale Univ Pr. 44.
- [www.geocities.com/Hollywood/Studio/4290](http://www.geocities.com/Hollywood/Studio/4290)